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당선·유력자

<5일 새벽 1시30분 현재>

〈범례〉

▲이름 ▲나이·정당 ▲주요 경력
▲정당 약칭
민=새정치민주연합 무=무소속

광주

▲동구청장
노희용
51·민
동구청장
당선



▲서구청장
임우진
61·민
전 행정부시장
당선



▲남구청장
최영호
49·민
남구청장
당선



▲북구청장
송광운
60·민
북구청장
당선



▲광산구청장
민형배
52·민
광산구청장
당선



전남

▲목포시장
박홍률
60·무
정치인
당선



▲여수시장
주철현
55·민
변호사
당선



▲순천시장
조충훈
60·무
순천시장
당선



▲나주시장
강인규
59·민
정당인
당선 유력



▲광양시장
정현복
64·무
무직
당선 유력



▲담양군수
최형식
58·민
담양군수
당선



▲장성군수
유두석
64·무
기업인
당선



▲곡성군수
유근기
51·민
정당인
당선



▲구례군수
서기동
64·민
구례군수
당선



▲고흥군수
박병중
60·민
고흥군수
당선



▲보성군수
이용부
61·무
남부대 교수
당선



▲화순군수
구충곤
55·민
전 도립대 총장
당선



▲장흥군수
김성
54·무
전 도의원
당선



▲강진군수
강진원
54·민
강진군수
당선



▲완도군수
신우철
61·민
정당인
당선



▲해남군수
박철환
55·민
해남군수
당선



▲진도군수
이동진
68·민
진도군수
당선



▲영암군수
전동평
53·민
정당인
당선



▲무안군수
김철주
56·민
무안군수
당선



▲영광군수
김준성
62·무
심지종합건설 이사
당선



▲함평군수
안병호
66·민
함평군수
당선



▲신안군수
고길호
vs
김승규
경합



광주, '현직+당 지원' 업고 싱거운 승리 전남, 공천 갈등에 탈당... 무소속 강세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 표심

광주는 '새정치민주연합 싸늘이', 전남은 '무소속 돌풍'으로 요약된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는 공천 과정에서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광주지역 경선은 충분한 준비를 거치면서 원활하게 진행됐지만 전남지역 경선은 후보 등록이 임박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돼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이다.

◇광주는 새정치 싸늘이=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 광역의원을 '싸늘이' 하며 사실상 광주에서는 완승을 거뒀다.
광주시장 후보 전락공천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하면서 무소속 연대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됐지만, 광주지역 유권자들은 투표 당일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을 선택했다.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당선된 것을 비롯, 구정장 선거에서도 노희용 동구청장 후보, 임우진 서구청장 후보, 최영호 남구청장 후보, 송광운 북구청장 후보, 민형배 광산구청장 후보들이 모두 승리를 거뒀다. 임우진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직이 승리했다. 이로써 송 정장은 3선에, 노희용·최영호·민형배 정장은 재선에 성공했다.
광산구청장 선거를 제외한 4개 구정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에 맞섰지만, 이들 모두 큰 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시의원 선거에서도 개표가 30%정도 이뤄진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 대부분이 60%이상의 득표율을 올리며, 새누리당·통합진보당·정의당·무소속 후보들을 압도했다.
이는 역대 선거와 달리 초접전 양상을 보였던 광주시장 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지도부 등이 당력을 총동원해 파상공세를 펼치며 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진보 정당 소속 후보들이 지난 2010

년 지방선거와 달리 지방의회 대거 진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의원 선거에까지 '묻지마 2번 투표'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뒷발에서는 '역시 곳으면 된다'는 식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은 무소속 돌풍=22곳의 시군 중에서 8명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은 역대 지방선거 중 최다다. 전남에서는 그동안 5번의 지방선거에서 1995년 1회 때 나주와 곡성 등 2곳에서, 이후에는 2회 7곳, 3회 6곳, 4~5회 각 7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또 비록 이렇게 탈락했지만 전경태(구례)·송귀근(고흥)·임호경(화순)·임성훈(나주) 후보 등 상당수의 무소속 후보들은 개표 과정에서 선두를 주고받는 등 선전하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이 같은 전남의 무소속 후보 돌풍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각종 구태를 보여준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칙 없는 공천기준과 우왕좌왕 공천 심사, 자기 몫 챙기기 등으로 신당에 기대를 걸었던 유권자를 실망시킨 탓이다. 과거에도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각종 잡음을 일으키고 국회의원이 미는 후보에 유리한 공천방식을 채택하면서 유력 후보들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감행, 무소속 바람을 일으켰지만 이번 공천과정만큼 혼란스럽지는 않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또 조직력을 갖추고 인지도가 높아 경쟁력이 있는 전현직 단체장 상당수가 아예 당내 경선을 포기하고 무소속 후보로 나선 것도 새정치민주연합 측 후보들을 이길 수 있는 원인이 됐다. 나아가 당 공천과정에 공명된 불만을 가진 무소속 후보들이 단일화를 성공시킨 사례가 잇따르면서 무소속 바람을 확산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또 당 지도부가 광주선거에만 몰인하고 전남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 패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NAVER *전국최저* 단비플라워 등 *최저* 선물

단비플라워

죽아화완3단 근조화완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두암신협 특별판

50억 한시

정기에탁금 1년 **3.1%**

알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두 암 신 협

본 점: 263-0136 (말바우 사거리)
울곡지점: 264-1232 (두암중학교 인근)
첨단지점: 572-9511 (송빛아파트 정문 맞은편)